# 하나님판 아니면 다 개판이다

## (신2:1~37)

1.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4.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6.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판 아니면 다 개판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판 아니면 다 개판이다'

엊그제 동아일보에 진보논객 중의 한 사람인 모 대학 교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 각 당마다 공천권 문제로 시끄러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 갈등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트위터에 글을 썼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의 통치는 1년차: 국정원 대선 개입 / 2년차: 세월호의 십상시(십상시는 중국의 후한 말에 십여 명의 환관들이 정권을 잡고 놀아남) / 3년차: 메르스 사태, 경제는 바닥, 민생은 파탄'이라고 지적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저 혼자 살겠다고 퇴임 후 목숨 관리에 들어간 듯'이라고 썼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입지가 견고하게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퇴임 후 목숨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개판이라고 합니다. 이 진보논객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마음도 없고 진보논객의 말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한쪽을 쫓아가기가 지쳐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천당 편 한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도드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냐면 경제가 파탄 나고 메르스가 와서 개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정치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지 않았다면 개판이 맞습니다. 진보논객의 관점과는 다른 의미에서 개판인데 복음이 없는 곳, 십자가 생활화가 되지 않는 곳은 여지없이 다 개판입니다.
'개판'의 뜻을 모를 리 없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사리에 어긋나거나 질서가 없는 판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리(事理)'는 일의 도리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땅히 가야할 길이고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길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로서 갖고 계신 뜻 외에는, 어디에서도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땅히 가야할 사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선민의 삶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일과 사건이 마땅히 진행되어 갈 길(사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그 사리가 일에 적용되지 않고 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채로 일이 진행된다면 개판입니다.
선악 판단 없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만 살 수 있었던 타락 이전의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판으로 사리와 질서와 조화의 땅입니다. 역사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소원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서 살았으므로 에덴은 하나님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의 아담은 알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알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게 되면서 마음에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지니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다가 쫓겨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마음에서 추구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행동하므로 모든 사건과 일들이 얽매임에서 나옵니다. 돈과 건강과 자식과 가족과 나라의 안정 등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얽매여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의 사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는 행동이 되다 보니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는 것이고, 돈이 좋다고 해서 돈에 얽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이 개판이 됩니다. 내가 관계해야 될 돈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그 뜻이 흘러가야 될 마땅한 길인 사리를 벗어나서, 내가 얽매인 상태에서 돈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소원하고 결정을 하니 내 삶 속에서 돈과 관계되는 영역이 다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몸 되기를 두려워하면서 세상 가치를 걸치고 싶어 하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에덴 밖의 삶은 개판이고 죄만 나타나는 죄판입니다.

‘판’은 현장으로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입니다. 지금 삶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건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바로 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위하고 계시는 현장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 현장이 아니면 선민의 삶 전체는 다 개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덴 밖에서 알몸 되기가 두려워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죄판이고 개판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죄판과 개판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선민으로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리를 따라 일이 진행되는 삶이 아니라면 개판이라는 애깁니다. 노름판, 씨름판, 굿판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판은 통틀어서 이 세상의 사소한 미물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사리를 듣고 따라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외 없는 개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죄가 판치는 죄판이 아니고, 마음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가치에 얽매인 사리에서 벗어난 개판이 아닌 하나님판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겠다고 움직였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다 개판입니다.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묻고 확신하는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면, 성심껏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개판을 만든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세편으로 나누어진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제 1장을 보고 오늘 2장을 보는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때에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언적인 성격이 강한 이유는 이 설교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고 진군을 하게 됩니다. 120살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쯤에 유언적인 성격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도 쭉 읽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을 못했거나, 경험했어도 너무 어려서 그 의미를 모를 때였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한 대역사를 경험했어도 출애굽 1세대는 망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2세대가 주역이 되어서 가나안 진군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의 정착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복지를 살아갈 때에 그 복지가 개판이 되지 않고 하나님판이 되게 할 것인가에 착심해서 행한 설교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행동이 나타나는 현장은 사람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눈에 띄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엉망이 되어도 당장에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판과 하나님판 사이에 중도적 성격에 서있는 사람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의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될 길, 사리를 받지 않고 일이 진행되어서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면 개판이고 반드시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걱정은 복지에서 어떻게 해야 개판이 아닌 하나님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250만 명 이스라엘 선민의 집단이 개판이 되어서 38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게 됩니다. 제발 이제는 개판을 벌이지 말고 하나님판으로 복지를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지의 삶이 하나님판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가나안 진군 직전까지의 타이밍을 놓고 생각하면, 먼저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온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네 번의 경험이 주어집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중심으로 복지에서 하나님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세일산의 에돔 땅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에서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들의 지경을 통과할 때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하신 이후에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라고 하십니다.
7절의 말씀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6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에돔 사람에게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먹을 테니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맺고 좀 지나가게 해 달라'는 말과 '사십년 광야를 부족함 없이 지냈다'는 말을 어떤 뜻으로 붙여서 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판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 양식과 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려는 것인데 7절에 난데없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이십니다. 내가 지금 에돔 땅에서 양식과 물을 사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줄테니 양식을 팔고 물을 팔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 부족이 없었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양식과 물을 구하려 할 때에 마음조차도 양식과 물에 얽매이지만, 선민은 돈을 들고 양식을 구할 때조차 마음은 이 돈으로 양식을 구해야만 산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식과 물을 추구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양식과 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므로 돈 주고 양식을 산다고 해서 마음까지 양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의 삶의 현장인 가나안 복지가 하나님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사십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면서 살게 했으니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마음이 절대 양식과 물에(우물을 파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지요? 우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건은 모압과 암몬과의 만남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어 나온 자손들입니다. 첫째 딸에서 나온 자손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암몬인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을 얘기하시는 중간에 13절에서 "세렛 시냇가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냇가를 건널 때에 모세는 다시 한 번 38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묘한 부분입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 옛날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기소침해서 좌절하고 원망 불평할 때와는 달리 반대로 의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 처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맨 아래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는 남 아모리가 있었고, 그 위에는 암몬이 있고, 다시 그 위에 북 아모리가 있었습니다. 아모리를 사이에 두고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 징검다리처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렛 시냇가를 지나서 도착한 여기까지 '가나안 땅을 못 간다고 여겼던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출애굽 2세대는 모압과 암몬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갖지 말라고 하시고, 그 옛날에 가나안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도 안 갖겠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땅이 이 세상의 소유와 재산을 뜻하는 것이라면, 재물과 관계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판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재물과 재산에 대해서 마음에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갖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갖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억 짜리 일이 있다면, 제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 계획이 없기 때문이지, 백억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천억 짜리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천억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나의 삶이 진행돼야 될 사리라면 천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모압은 아모리의 침략을 받아서 힘이 없으므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쉽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내치지 말아야 하나님판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 내가 못한다고 내친다면 사람판이 되고 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 시혼 왕에 대해서는 진멸시키시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평화를 선언합니다. '모리 땅은 너희 손에 붙였으니 진멸시키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평화를 선언했다'고 2세대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평화의 선언을 했는데, 즉 내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나갈 텐데 절대로 해치지 않고 화평의 관계를 맺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 것처럼 해야만 복지가 하나님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평화를 선언했지만, 시혼 왕이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전쟁이 일어나 그들을 진멸시켰다고 합니다. 왜 평화의 말을 선언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될 모든 주적을 향하여 평화를 선언해야 하나님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리가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무찔러야만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막고 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나안을 두면 아모리가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복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아모리가 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마음속에 넣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는 자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선민에게 주시려는 가나안을 두셨던 것이고,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하나님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돈을 빼먹는 친척이 있어도, 그 사업을 마음에 두고서 그 친척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친척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적을 증오해서 싸우게 되면 내판이 되고 개판이 됩니다. 내가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비느하스의 질투는 무엇이냐? 비느하스의 질투는 완전히 다르지요. 선민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비느하스가 바알브올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한 것은 나의 기업인 하나님을 뺏기는 것을 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가 가나안땅의 일곱 족속과 다른 점은, 가나안 땅에 사는 자가 아니면서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절시키는 것은 이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내 기업을 뺏어가니 내 적들인데, 그런 면에서 비느하스의 질투와 증오

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 몫으로 두신 사업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판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하나님의 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재물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내게 당치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고 해서 뿌리칠 것도 아니라야 하나님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서 몇 조원이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나?'라고 안 된다고 뿌리치지 말고, 또 '몇 천만 원짜리 일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개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담음으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네 가지 국면들에 대해서 하나님판이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꽉 붙잡고 삶의 모든 현장인 사람과 사건과 사물 앞에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나의 밀착관계 사이에 아무것도 내 몸조차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는 개판이 지양되고 죄판이 끝나고 하나님판이 진행되어 갈 것인데 바로 회복된 에덴이고 약속된 복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들에게 약속된 복지가 있는데, 그 복지가 하나님판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순간 순간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승천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오로지 하나님판만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